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7. 5.(화) 14:00	배포 일시	2022. 7. 5.(화) 13:30
담당 부서	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	책임자	과 장 이재완 (044-215-7650)
		담당자	사무관 김교중 (gyojungk@korea.kr)

추경호 부총리,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대표단 면담

- 추경호 부총리는 7월 5일(화), 제29회 한일 재계회의* 참석차 방한한 도쿠라 마사카즈(十倉 雅和)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주요 일본 기업인 대표단을 면담하고, 한일 경제협력 및 양국 기업인 간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양국 민간 경제협력 채널 다원화를 통한 한일 재계 중진간 상호이해와 우의 증진을 위한 행사로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간 교차 개최

< 면담 개요 >

- 일시·장소: '22.7.5(화) 13:40~14:00, 서울청사 별관 3층 외빈접견실
- 예방단: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대표단(5명),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(1명)

	성 명	소 속	직 위	회 직
日 경단련	도쿠라 마사카즈	스미토모 화학	회 장	회 장
	사토 야스히로	미즈호 금융그룹	고 문	부회장
	야스나가 타츠오	미쓰이 물산	회 장	부회장
	히가시하라 토시아키	히타치 제작소	회 장	부회장
	구보타 마사카즈	일본 경단련	부회장	사무총장
韓 전경련	권태신	한국경제연구원	원 장	부회장

- 추 부총리는 그간 양국 경제인간 중요한 교류 채널로 기능해 온 한일 재계 회의가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*되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,

* 1983.11월 제1회 ~ 2019.11월 제29회까지 既 개최, 단 2020·2021년 코로나19로 중단

- 최근 한국의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재계회의가 재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.

- 면담을 통해 양측은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로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,
- 추 부총리는 미래지향적 성과 창출을 위해 양국 재계 간 적극적인 상호 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 노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